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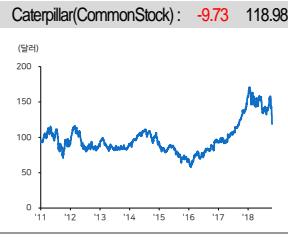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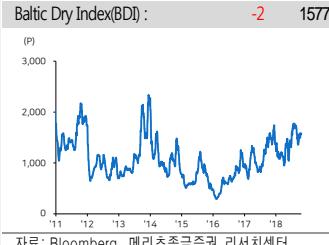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680.3	16.7	125,500	-5.3	-2.7	31.8	30.8	87.5	41.9	0.6	0.6	0.7	1.4
현대중공업주	6,294.8	20.5	386,500	0.1	-0.8	132	1.4	52	43	0.7	0.6	14.1	14.7
현대알렉트릭	697.1	4.7	68,300	-2.4	6.4	166	-40.1	65	5.6	0.6	0.5	9.3	9.7
현대건설/기계	1,155.5	7.9	117,000	-2.9	1.7	-2.9	-30.8	74	5.5	0.8	0.7	11.7	13.9
삼성중공업	4,605.3	18.0	7,310	-1.9	-9.4	175	13.0	46.1	22.9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3,334.1	9.6	31,100	-1.9	-6.9	293	123.7	78	16.1	0.9	0.9	12.4	5.4
현대미포조선	1,954.0	9.5	97,700	-1.2	-1.3	209	24.1	21.1	152	0.7	0.7	3.6	4.8
한진중공업	215.8	6.9	2,035	-1.9	-21.7	-29.3	-38.5	40.9	102	0.3	0.3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729.4	22.6	100,500	0.0	-11.5	312	84.7	17.7	17.3	2.4	2.2	14.6	13.3
두산밥캣	3,889.7	26.4	38,800	0.9	6.0	285	9.8	142	13.4	1.1	1.0	7.4	7.6
현대로템	2,337.5	1.8	27,500	-0.9	-10.9	143	46.7	35.5	242	1.6	1.5	4.5	6.3
하이록코리아	304.3	48.7	22,350	-4.3	-5.9	-4.5	-0.7	10.1	9.3	0.9	0.8	8.8	9.0
성광밴드	348.9	15.9	12,200	-3.6	-4.3	146	22.2	1,078.5	43.7	0.8	0.8	0.1	1.8
태광	351.1	12.8	13,250	-2.9	-7.3	256	10.0	79.1	38.6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464.3	14.2	12,500	-3.1	-16.1	-10.1	-18.6	21.4	7.7	0.4	0.4	2.7	6.0
두산인프라코어	1,875.5	21.0	9,010	-1.9	-2.8	-2.3	3.7	6.0	5.6	1.0	0.9	17.5	16.0
HSD엔진	143.8	4.3	4,365	-1.8	-3.2	167	69.9	N/A	N/A	N/A	N/A	N/A	N/A
한국항공우주산업	3,138.7	10.3	32,200	0.0	-29.6	-6.5	-32.1	29.5	22.1	2.8	2.5	9.3	11.8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83.1	11.6	28,500	-1.0	6.7	23.4	-19.8	40.5	20.1	0.7	0.7	1.7	3.4
LIG넥스원	760.1	8.3	34,550	0.4	1.0	-1.7	-42.2	37.0	17.7	1.2	1.2	3.4	6.8
태웅	233.1	4.8	11,650	-2.1	-19.7	-202	-39.8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14.2	5.5	7,940	-0.4	0.5	29.5	57.2	-24.4	25.6	2.9	2.7	-11.0	10.9
한국카본	302.5	13.4	6,880	3.5	1.5	19.9	28.4	106.7	23.8	1.0	0.9	0.9	4.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aterpillar drops the most since 2011 after says costs are rising from tariffs

Caterpillar(CAT)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은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무역분쟁에 따른 비용증가로 2011년 이후 최대 하락폭인 -7.5%를 기록함. 시장에서는 2018년 가이던스를 상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CAT은 기존에 제시한 가이던스인 주당 11~12달러를 유지함. 시장 컨센서스 최하단은 11.65달러로 알려짐.

주된 문제는 제조원가 상승으로, 철강가 상승과 운송비 증가가 주된 요인임. 철강가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무역분쟁, 운송비는 높은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공급 비효율성 때문에 상승했다고 알려짐. 3분기 원재료 가격에서 관세가 차지하는 영향은 4천만달러 수준으로 밝힘. CAT은 2018년 전체로 봤을 때 관세의 영향은 1~2억달러로 제시함. 동시에 이번 실적발표에서 2019년 1월부터 전세계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1~4% 제품가 인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함. (CNBC)

선가 상승세 2021년까지 지속

Maritime Strategies International에 따르면 국동 지역 조선사의 설비감축, 자재가격 인상, 신조선 수요증가 등이 선가상승으로 연결됨. 특히 한국 조선업체들이 향후 일감을 거의 다 채워, 현재 약 2년 정도 일감을 확보함. 2021년까지 IMO 환경규제에 따른 신조선 수요증가와 선가상승이 예상됨. (선박뉴스)

메르켈, 트럼프 압력 굴복 미국산 LNG 수입 허용

WSJ에 따르면 독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산 LNG 수입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독일 북부 함부르크 인근에 LNG 터미널 건설을 위해 5억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독일로 직접 가스를 추가 공급하는 '노드 스트림2' 가스관 공사 프로젝트에 대해 경고해왔음. (연합뉴스)

Wartsila: 2019 scrubber deliveries nearly sold out

글로벌 엔진 및 스크러버 제조업체 Wartsila는 2019년에 인도할 수 있는 스크러버 발주가 거의 끝나간다고 밝힘. 최근 몇 달간 스크러버 장착을 원하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9년 인도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촉박해지는 모습이 확인됨. Wartsila의 2018년 수주잔고는 13.6억유로로 알려짐. (TradeWinds)

SK해운, 스크러버 장착 계획 축소

SK해운 선대규모는 총 61척으로 그 중에는 VLCC 19척과 VLGC 6척이 포함됨. 한앤코에 인수되기 전에 SK해운은 총 1천억원을 투자해 보유 선박 중 44척에 스크러버를 장착할 계획을 밝힘. 그러나 최근 SK해운은 계획을 변경해 보유한 선박 중 18척에만 스크러버를 장착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